

욥의 고난 드라마 시작: 고통은 인생의 한 요소이다

성경말씀: 욥1:1-22

인생의 여러 요소; 희로애락, 고통, 1. 인내, 2.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4000년 전 욥, 롬15:4 여러 자료, 위어스비의 강해가 가장 포괄적이며 내게 은혜를 끼침, 중심으로 강해, <제목>

욥의 번영과 형통(1:1-5)

우스 땅에 거함: 사우디아라비아, 에돔 근방(1)

성품: 완전하고 곧바른 사람, 죄 없음을 뜻하지 않는다. 노아도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창6:9)

성숙한 사람, 행위가 올곧은 사람, 위선과 가식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지킴(2:3)

좋은 성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미워함(28:28),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존중함
일곱 아들과 세 딸(2), 자식들 간에 우의가 좋음(4): 좋은 부모의 영향

많은 재산(3), 재산이 하나님에게서 욥(1:21), 많이 베풀(4:1-4; 29:12-17; 31:16-32)

친구들이 있었다(2:11).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좋은 친구들, 다투었지만 화해함

욥의 1차 재난(1:16-19)

이 모든 재물과 자식들을 하루에 잃는 재난 발생, 4명의 사자가 와서 악한 보고를 함(14-19)

1.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들 약탈(14-15), 2.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들을 불태움(16), 3.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들을 탈취함(17), 4. 큰 바람이 집을 무너뜨려 아들딸들이 다 죽음(18-19)
- 전9:12, 누구에게나 고난과 재난은 예고 없이 닥친다. 이번에 밀양 병원 화재, 예외가 없다.

재난이 닥쳤다. 그런데 왜 닥쳤을까? 이것이 핵심

욥의 경우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 주셔서 알 수 있다(6-12). 마귀 개입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욥의 세 친구처럼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야기할 것이다(롬15:4).

1. 사람과 인류의 모든 일은 주권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심지어 마귀도. 이런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함(성경 전체 57, 욥기에만 31회)
2. 사탄은 범죄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7; 2:2). 그는 지옥에 갇혀 있지 않다.
3. 그는 하늘의 왕좌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성도를 고소한다. 사탄: 대적하는 자, 고소하는 자, 그 큰 용, 저 옛 뱀, 마귀, 사탄, 온 세상을 속이는 자(계12:9),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12:10)
하나님의 판단: 그는 고난받을 죄가 없다(1:8; 2:3; 42:7), 마귀: 배반할 것이라고 고소함(9-11)
4. 욥의 고난: 사탄의 고소를 잠재우기 위한 수단, 사람이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한 수단, 이런 고난이라면 감당해야 한다.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욥의 친구들 말: 죄를 창안해서 회개하고 복을 받으라. 그러나 욥은 순전함을 지켰다.
5.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성도들 건드림, 궁극적으로 성도의 행복, 귀한 성품 개발
그래서 어떤 경우 인생의 어떤 시련과 고난은 마귀를 잠잠케 하려는 하나님의 무기, 인내가 해당 대한민국의 시련도 마찬가지, 미혹의 그림자 한반도 전체(시12:8), 마귀를 궤멸시킬 줄로 믿는다.

욥의 충성(1:20-22)

하나님의 천사들, 마귀의 천사들이 욥을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이 맞는가, 마귀가 맞는가?

욥이 경배하고는 엄청난 고백

1. 하나님의 주권과 자신의 청지기직(21)
2. 인생 시작부터 끝까지의 기간에 사람이 얻는 것은 사람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한다(딤후6:7).
3. 하나님께서 주시고 가져가시니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21).
4.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죄를 짓지 않음. 이것으로 이야기는 다 끝남, 이것을 우리는 충성(fidelity, loyalty)이라고 함

시대가 악하므로 충성된 사람을 찾기 어려움, 이순신, 김유신, 계백 장군의 위대함: 충성

모세, 다윗, 다니엘, 사도 바울의 위대함: 충성에 있다. 하나님께 충성을 보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 교회에 충성을 보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연속되는 욥의 불행(2-3장)

마귀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또다시 하나님께 와서 욥을 고소함(2:1-3)

1. 이번에는 그의 몸과 건강에 손을 대기 원함(4-5).

그 결과 그에게는 심한 종기가 생김(7-8), 너무 심해서 그의 친구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함(2:12). 모든 병의 원인이 사탄과 마귀들인가? 아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 미치는 일(마8:28-34), 말 못하는 일(마9:32-33), 눈먼는 일(마12:22), 몸이 굽는 병(18년, 눅13:11-17), 콧코 찌르며 쉬지 않는 고통(고후12:7)

너무나 보기에 흉측해서 그의 집안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이 다 그를 피함(19:13-20). 동네 밖

2. 그의 아내의 저주(2:9)

가장 가까운 그의 아내를 통해서 그를 시험함, 구약시대에 예수님의 고통을 거의 다 경험한 사람은 욥: 아내와 세 친구만 남았다. 그런데 그들마저 그를 버림.

아담은 이브의 딸, 아브라함도 이브의 딸을 들음, 욥의 위대함: 그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음(10) 또 다시 욥의 위대함의 드러남(10), 롬15:4

누가 그의 아내를 비난하겠는가? 이것은 오히려 그를 돕기 위한 말

가장 위대한 사람, 부자, 모든 것을 잃고 지금 동네 밖의 쓰레기통에 앉아서 상처를 긁고 있음 “주여, 차라리 죽여 주십시오!”, 이것 역시 우리 인간의 취약함과 무기력을 표현한 것임

3. 고통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성도에게도.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롬15:4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감정, 환경,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 고통 속에서 욥이 포기하지 않은 것: 믿음, 순전함(충성)

하나님이 사람을 치실 때에도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 어려움이 닥칠 때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다.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탐험(1492년 70일 여행, 선상 반란, 죽을 뻔한 위기), 쉬운 일이 아니었다. 중간에 포기해도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리했으면 아무도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았을 것이다.”

4. 욥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결국 그의 아내가 돌아오고 다시 7 아들과 3 딸을 얻었다(42:13).

욥의 세 친구들(2:11-13)

1. 이들은 좋은 사람들이다(11). 위로하려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왔다.

2. 티끌을 뿌리고 그와 함께 이레 동안 말없이 땅에 앉음(12-13)

3. 많은 경우 참된 위로는 말없이 함께 해 주는 것이다.

욥의 한탄(3:1-24)

이레 후에 그는 자신의 생일을 한탄함(3). 예레미야도 그리하였다(렘20:14-18). 버텨야 한다.

불평이 아니라 인간의 취약함을 잘 드러내는 것이다. 괜찮다.

자살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너무나 고통이 심할 때는 사람인지라 이런 헛소리가 나올 수 있다.

물론 나중에 가서는 후회하게 되는 소리들

인생의 고통과 절망은 종종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게 한다. 이게 인간이다.

그는 다섯 번에 걸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께 묻는다(11-12, 20).

“왜, 왜!” 라고 묻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답을 해 주실 필요는 없다.

심지어 예수님도 죽기 바로 전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27:46)라고 묻는다.

아무 대답이 없다. 답이 있다고 해서 고통에 도움이 될까? 다리가 아프다. 엑스레이, 뼈에 금, 고통이 사라질까? 그럼에도 인간이기에 취약함을 표출한다. 가능하다.

욥의 통찰력(3:25-26)

욥은 항상 자식들, 종들, 건강, 재산 등을 신중하게 관리했다. 악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임하였다(25).

모든 재산, 부귀영화, 형통함이 있었지만 그는 온전히 안전과 안식과 평온함을 누리지 못했다(26). 즉 하나님께 누가 되는 일이 생길까 봐 늘 노심초사하며 살았다. 그럼에도 고난이 임하였다, 이유가 무엇일까? 4장부터 욥의 친구들의 변론

성경 기록이 보여 주는 것

1. 인간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불완전하다. 앞날을 전혀 모른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일
2.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쓰러질까 조심해야 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3. 불평과 불만은 상황을 점점 나쁘게 만들 수 있다.
4. 고통을 당할 때 선한 사람도 취약함을 드러낼 수 있다. 죽기를 시도하지 말고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 앞으로 회개 보고하는 날이 다가온다. 충성스럽게 살아야 한다.
5. 예수님만 죄 없는 존재,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발을 지켜 주신다(벧전2:22-25). 롬15:4